

2017 대한민국 에너지대전 미리보기

# 최신 에너지 정보·기술·제품 '한 자리에'

### 19~22일 일산 킨텍스...다양한 에너지산업, 정책 체험의 場 제공

정부 에너지정책과 에너지산업의 최신 정보·기술·제품을 모두 만날 수 있는 '2017 대한민국 에너지대전'이 19일 개막한다.

특히 올해는 효율·건물·신재생에너지·수송 등 에너지정책 부문별 주요 아 이템을 일반 국민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기존 기업 위주의 전시회에서 탈피해 국민들의 에너지산업에 대한 인식과 시각을 바꾸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박은규)와 한국에너지공단(이사장 강남훈)은 19일부터 22일까지 나흘간 일산 킨텍스에서 '2017 대한민국 에너지대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 대회는 제37회 에너지효율전과 제8회 신재생에너지전이 통합 개최된

다. 해외기업 13곳을 포함해 총 257개 기업이 전시회에 참여한다. 전시장은 1000개 부스 규모로 꾸러진다.

2017 대한민국 에너지대전의 가장 큰 특징은 국민 참여 행사의 활성화다. 에너지 종사자 뿐 아니라 일반 국민이 참여해 즐기는 부대행사가 다채롭게 기획돼 이른바 '에너지 축제'를 선보인다는 방침이다.

이번 전시장에는 전기차 시승장이 마련된다. 전문 운전자가 운전하는 르노삼성 트위지 2대를 5분동안 시승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다.

최근 큰 인기를 끌고 있는 대중강연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도 전시장에서 만날 수 있다. 21일 전시장 메인무대에서 '에너지에 미래를 더하다'라는 주제로 펼쳐지는 에너지 지식강연을 통

해 국민의 에너지에 대한 관심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에너지와 관련된 영화는 매개로 삼아 에너지를 쉽고 재미있게 풀어주는 퀴즈-토크 형식의 강연에도 이목이 집중된다. 22일 열리는 '에너지 뉴스타'는 매드맥스 분노의 도로, 백투더퓨처, 아이언맨 등 대중 영화에 녹아있는 에너지와 미래 변화를 조망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전망이다.

전시장 내 체험장에서는 나홀 내내 자율학기제 중학생 약 100명을 대상으로 한 학생교육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에너지공단 혁신인재육성실의 자율학기제 프로그램이나 글로벌수련진흥원 프로그램 등 학생교육프로그램을 통해 태양광 소형발전기 만들기 등 실습과 전시부스 투어 등 현장체험이 연계·제공될 예정이다.

에너지기업에게는 우수 인력 채용의 기회를, 구직자에게는 취업 상담을 통한 채용정보를 제공하는 일자리 소통과 정보 교류의 장도 눈길을 끈다.

22일 에너지공기업·민간기업 등 20개사 내외가 참가하는 좋은 일자리 토크 콘서트는 기업이 원하는 인재상에 대한 소개, 설명과 더불어 대학생, 신재생에너지 기자단의 궁금증을 풀어주는 시간이 준비됐다. 에너지기업 인사담당자와 1대1 멘토링 서비스도 시행된다.

태양광 창업과 에너지 정책금융 상담 등을 진행하는 신재생에너지 종합지원센터도 행사기간 내내 운영된다.

이밖에 기존 대회에서 선보였던 신제품 발표회, 수출상담회, 정책세미나, 사업설명회 등도 올해 그대로 진행될 예정이다. 박경민 기자 pkm@

## 가스공 평택 LNG 생산기지 터미널 분리공사 착수

세계 최대 규모의 LNG 터미널인 가스공사 평택 LNG 생산기지가 보다 안전하고 안정적인 천연가스 공급을 위한 터미널 분리공사를 시작했다.

한국가스공사(사장 직무대리 안완기)는 13일 평택 LNG 생산기지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터미널 분리공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사는 수전(受電) 이중화와 변전소 설비 부하 분산을 통해 정전 발생 시 계통장애 영향을 최소화하고, 구간별 종합정보 운영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공사는 올해 9월부터 2019년 12월 까지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공사가 마무리되면 2020년부터 평택 LNG 기지는 기존 단일 터미널에서 2개의 복합 터미널로 전환돼 분리 운영된다. 일부 설비 고장으로 인한 부분 보수 중에도 나머지 설비는 독립적으로 가스 송출이 이뤄져 보다 안정적인 터미널 운영도 가능해진다.

김성모 가스공사 생산본부장은 "이번 터미널 분리공사를 통해 30년 넘게 장기 운영된 평택 LNG 기지가 새롭게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가스공사의 최우선 목표인 안전하고 중단 없는 천연가스 공급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경민 기자

## 대형발전기 권선 수소누설량 연속측정기 국내 첫 개발

### 한전 전력연구, 발전기 수소누설량 상시 감시·추이 분석 가능

전력연구원이 발전기에서 새는 수소를 보다 정밀하게, 상시 측정할 수 있는 장비를 국내 최초로 선보였다.

한전 전력연구원(원장 배성환)은 화력발전소의 대용량 발전기에서 새는 미량의 수소를 정밀하게 상시 측정해 장기에 참여할 수 있는 상용화를 앞두고 있다"며 "국민들의 관심이 높은 농촌태양광, ESS, E-Green 등 에너지정책 금융 소제도 이뤄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울리 그는 "현재 신재생에너지 관련 각종 규제를 완화해 농민 등 지역주민이 직접 참여하거나, 학교·마을회관 등 공동시설을 활용한 태양광 발전 등 다양한 참여형 사업모델이 개발 중"이라며 "한국에너지공단은 규제 완화 등 신재생에너지 산업 확대를 위한 관련 제도 개선과 함께 주민 수용성, 사회적 수용성 개선을 위한 국민 참여형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개발을 통해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더욱 힘써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발전기 상수를 위한 '에너지 분야 좋은 일자리 나눔의 장'도 마련된다. 강 이사장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신정부의 3대 과제 중 하나로 제시되고 있는 만큼 에너지 분야에서의 창업 및 채용의 기회를 확대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일"이라며 "에너지 분야 좋은 일자리 나눔의 장을 통해 기업 인사담당자들이 채용하기 원하는 인재상과 취업노하우를 소개하고 취업을 준비하는 대학생들과 1:1 멘토링 서비스를 통해 대학생들의 에너지 분야 채용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스누설 측정의 정확도를 개선하는 등 예방진단도 가능하다.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한 누설량 원격 확인 등 발전기 관리자를 위한 사용자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전력연구원은 지난 7월까지 한국남부발전 하동화력발전소 5호기와 7호



한전 전력연구원이 남부발전 하동화력 5호기에서 시험 및 실증했던 '발전기 권선 수소누설량 연속 측정기'의 모습.

기를 대상으로 '발전기 권선 수소누설량 연속 측정기'의 실증시험과 성능시험을 진행한 바 있다. 국내 중소기업에 기술이전도 완료했다.

전력연구원 관계자는 "국내 90여기 대용량 수냉각발전기 대상에 발전기 권선 수소누설량 연속 측정기 적용 확대를 추진함으로써 최적 정비량 수립과 발전소 불시 정지 예방을 통한 안정적 전력공급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정훈 기자 jh@

I·N·T·E·R·V·I·E·W

### 강남훈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



"세계적인 에너지 대전환 추세에 대응하고 온실가스·미세먼지 감축, 에너지 자립기반 강화 등을 위해서는 정부가 제시한 '2030년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20%' 목표는 어렵지만 우리가 반드시 가야 할 길입니다. 친환경 미래에너지 분야 국내 최대 규모의 전시회인 '2017 대한민국 에너지대전'은 이러한 에너지 전환의 시대적 흐름에 발맞춰 기존 기업 중심 제품전시·홍보의 산업전시회(B2B)에서 더 나아가 대국민 참여 페스티벌(B2B+B2C)로 범위를 확대해 계획됩니다."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안전하고 깨끗한 친환경 미래에너지로 전환을 중점 추진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을 20% 까지 높인다는 목표는 현재의 보급 추세를 뛰어넘는 획기적인 보급방안과 노력이 필요한 것도 사실이다.

강남훈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사진)은 "이 목표는 규제를 통한 하향식(Top-down) 접근 방식만으로는 달성이 쉽지 않지만, 농촌태양광이나 시민관리를 활용한 태양광발전 등 상향식(Bottom-up) 접근을 비롯해 산·학·연·관이 힘을 모

아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해 추진하면 충분히 달성이 가능하다"며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성공이 주민들에게도 이익이 되는 환경을 조성하고, 농촌태양광 등 주민참여 사례를 창출·확산해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주민 수용성을 제고하는 노력이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열리는 '대한민국 에너지대전'은 국민들이 정부 에너지 정책과 에너지 산

### "에너지전환 발맞춰 대국민 참여 페스티벌로 준비

### 국민 에너지정책·산업이해 돕고, 산업활성화 기여"

업 전반을 쉽게 이해함과 동시에, 산업 활성화를 도모하는 소통과 체험의 장이 될 전망이다.

강 이사장은 "이번 행사에는 삼성, LG, KT 등 대기업이 참여하는 ICT관을 비롯한 신재생에너지, 건물에너지 등 국내외 약 300개 기업의 제품·기술이 1000개 전시부스에 소개되고, 에너지강연, 영화 콘서트 등 다양한 부대행사와 체험이벤트도 제공된다"며 "국민들이 보다 쉽게

고 전했다.

특히 강 이사장은 이번 전시회가 국민 참여를 바탕으로 한 민간중심의 에너지 시장 확대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 일환으로 이번 에너지대전에서는 전시장 중앙에 신재생에너지 종합지원센터가 운영된다.

강 이사장은 "신재생에너지 종합지원센터에서는 태양광 시공업체, 인허가 기

### MS-400 BATTERY CRIMPING TOOL

42mm, 350° 레드회전, LCD 디스플레이, 압축력, 압축력, 터미널간합

16~400mm<sup>2</sup>  
압축회수: 연속120회 (150mm<sup>2</sup> 기준)  
압축 완료시 자동복귀  
복귀용 제압축(전원) 가능  
중량: 7.2 kg

### MS-85C BATTERY CABLE CUTTER

350° 레드회전, LED 조명

16~400mm<sup>2</sup>  
절단범위: Ø85 mm  
최대종력: 60 KN  
최대압력: 70Mpa  
중량: 6.5 kg

---

### HPN-400RN 16~400mm<sup>2</sup>

압력: 11 TON  
중량: 4.8 kg (배터리 포함)

### HPN-400A 16~400mm<sup>2</sup>

압력: 11 TON  
중량: 4.6 kg

수업안내 및 A/S 센터

**HUTURN (주)휴턴** 서울시 서초구 반포로 37길 23-6 태동빌딩 4층

TEL: (02)3471-4931(내선) http://www.huturn.com

FAX: (02)3471-4935

## "견적, 적산 시스템은 아성정보 COST로 앞서 나가십시오."

### 전기적산통합(전기, 통신, 소방) CAD파일도면 물량적산까지

- ◆ 국내최초 특허출원 적산프로그램, 획기적인 AutoCAD파일 도면물량적산까지
- ◆ 관공, 사급, 설계업체에서 시공업체까지 건설관련 전업종에서 사용가능 (전기, 통신, 소방, 설비, 공조, 토목, 건축, 조경, 문화재, 인테리어, 시설물 등)
- ◆ 정부(조달청)인증소프트웨어로 적산과 동시에 내역자동작성
- ◆ 최신 차세대기, 임원대기, 정부노임, 품셈, 실적공시비등 자료 제공
- ◆ 아성정보 홈페이지->자료실->사용설명서에서 동영상설명서 참고하세요

통합내역 / 전기적산 / 설비적산 / 골조적산 / 마감적산 / 노무관리

★ 아성정보(株) ■ 문의전화: (053)751-6715 ■ 팩스: (053)753-5015 ■ 홈페이지: www.asungsoft.co.kr